

일본 아지무(安心院町)方式의 그린 투어리즘

아지무의 그린투어리즘

일본 농촌의 문제점은 인구의 과소화와 노령화(65세 이상이 35%)이다. 지금까지 관광의 주안점은 도로확장·건물 등 훌륭한 시설물 만들기 형태로 추진되어왔으며, 이는 농촌이 도시와 유사한 편리성을 갖추면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다시 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성과 도시화를 만들어감에 따라 농촌의 젊은이들이 더욱 도시로 빠져나가 이촌 현상이 더욱 극심해 졌다. 이에 따라 작은 농촌마을이 아무리 도시화하려해도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의 화려함이나 편리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반성하게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 만들기를 위해 “농촌다움”을 지켜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92년부터 농촌에만 있는 농산물 생산공간, 인간다운 생활방식을 활용한 지역만들기가 도입되었다.

Green Tourism이야말로 진정으로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되어 1992년에 일본에 도입되었다. 원래 Green Tourism은 유럽의 장기휴가문화에서 기인하여 발전한 휴가때 도시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여가를 즐기며 기분전환을 하고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장기휴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유럽과 다른 새로운 일본형 그린투어리즘을 실천해야만 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Green Tourism을 “녹음이 풍부한 농촌지역에서의 자연, 역사, 문화, 체험교류를 즐기는 체제형 여가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과 관광의 일환으로써 아지무에서는 잘살기 위한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아지무의 Green Tourism은 농촌이 무대이고 그 지역주민이 主役이 되어 기존의 아지무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이며 농촌주민의 정신적, 경제적 윤택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지무식 그린투어리즘의 특징

첫째, 주민과 행정이 함께 추진하는 체제이다. 1992년 주민주도형으로 Agri-Tourism 연구회를 발족시켜 추진되었다. 농민 스스로 관광농원과 산지직거래시스템을 개발하자는 취지로서 농가 자신이 직접 기른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자는 것이 그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인구 8,500명의 적은 지역에서 농가, 농업만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아지무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1996년 3월에 『아지무그린투어리즘연구회』를 결성하여 농업인, 공무원, 상공인모두가 연계관계를 가지고 주민 주도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6년 4월에는 의회와 행정에서도 그린투어리즘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1997년 3월에 일본 최초로 『그린투어리즘 추진선언』을 하고 10월에는 『아지무町 그린투어리즘추진협의회』가 町長, 행정, 의회, 농협 등 23명으로 구성되어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의 지원 및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2년 4월에는 일본최초로 그린투어리즘 전속담당 기구를 행정에 설치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 스스로 G.T(그린투어리즘)를 연구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지역개발을 위하여 이러한 민관의 상호협조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은 경관보존형과 지역 자연활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편리한 지역만들기에 중요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둘째, 아지무식 농가민박은 회원제이다.

일본 농가민박에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풍습은 없었다. 그리하여 일반 농가민박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관업법(객실은 5실 이상, 객실당 면적은 7㎡이상)이나 식품위생법(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조리실 완비)에 규제를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려면 별도로 1,000만엔의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번잡한 수속도 필요한 것이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고안해 낸 것이 특정한 사람 즉 회원만을 대상으로하는 회원제이다. 이 회원제에 대해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은 높은 평가를 했으나 처음에는 大分縣에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압력을 가해왔으나 차츰 여러각도로 검토를 거쳐 조금씩 아지무식 회원제 농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大

分縣式 농박으로 인정되고 이어서 여러 다른 縣도 이를 인정하여 일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농박을 실시함에 있어서 규제완화를 통해 일반 여관업법이나 식품위생법의 제약을 받지 않게되었다.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의 변화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아지무식 그린투어리즘의 효과

- 농촌의 좋은 점 살리기와 가치 인정
 - 농촌에는 도시에 없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재 인식
 - 자신들의 환경과 생활방식이 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에 대한 긍지를 느낌
 - 자신의 농촌생활과 인생에 대한 긍정적 평가
 - 교류를 통해 이 지역의 후원자와 팬(FAN)을 많이 만들 수 있음
 - 그린투어리즘의 주역은 주민(농민)
 - 농가, 밭, 자연 등을 교류의 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 없는 사업임
 - 그린투어리즘은 도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긍지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업임
 - 신뢰와 푸근한 인심을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경제적 활성화
 - 도시민과 교류를 통해 사고의 전환을 이룩함- 새로운 관점에서 농업, 농촌의 장점을 찾음
 -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수단을 통해 농촌주민의 자립,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갖게하는 것이 본질임 ㉠
- 〈편집부〉



◀(아지무에서 한 번 묵으면 먼 친척, 10회 묵으면 진짜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縣內농박가정에, 2주간(14회)묵으면 오이타현그린투어리즘 대사가 됩니다.)